

손흥민 좌절의 눈물... 토트넘 6년째 트로피 없는 빈 손

토트넘, 맨시티에 0-1로 저 리그컵 준우승에 그쳐 손흥민 선발로 나와 슈팅 '0개' 현지 매체 '최저 평점'



스포츠비밀룸 홈페이지 캡처

우승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한 손흥민(29·토트넘)이 그라운드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손흥민은 2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0~2021시즌 리그컵(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0-1로 패한 뒤 우승을 놓친 아쉬움에 평평 울었다.

프로 경력에서 우승과 연이 없는 손흥민이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한 그는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 6년째 트로피를 들지 못하고 있다.

국가대표로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유일한 우승이다.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

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 첫 우승 기회를 잡았지만, 리버풀에 밀려 실패했다.

이후 2년 만에 리그컵 결승에 진출하며 첫 우승을 노렸지만, 이번엔 맨시티의 벽에 막혔다.

최근 조세 무리뉴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뒤 구단 유스 출신인 라이언 메이슨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긴 토트넘은 맨시티의 경기력에 압도당했다.

슈팅 숫자에서 맨시티가 21개를 날릴 등

안 단 2개를 시도하는 데 그쳤다. 손흥민은 부상에서 회복한 해리 케인과 공격을 책임졌지만,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손흥민의 장기인 슈팅은 물론 역습 찬스에서 폭풍 같은 질주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 후 영국 풋볼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주며 "투카스 모우라 대신 교체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토트넘에 그가 필요했지만, 지켜 보았다"고

혹평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승을 놓친 손흥민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눈물을 쏟았다. 손흥민은 2014 브라질월드컵(조별리그 탈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8강 탈락, 2018 러시아월드컵(조별리그 탈락)에서도 원했던 성적을 내지 못하자 눈물을 흘렸다. 또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우승 실패 후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라운드에서 주저앉아 우는 손흥민을 본 맨시티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넸다. 과거 토트넘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카일 워커와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상대로 만났던 케빈 더 브라위너가 그를 안아줬다.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눈물은 조명을 받았다. 영국 미러는 "누구보다 우승을 바랐던 손흥민이 경기 끝나자 눈물을 흘렸다"면서 "맨시티 선수들이 그를 위로했지만, 슬픔을 털어주진 못했다"고 전했다. 또 스포츠비밀룸도 손흥민이 우는 사진과 함께 "더 브라위너의 위로를 받았지만, 이날 결과를 가슴에 새겼을 것이다"고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이 캐릭터 포스터 4종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이도현, 고민시, 이상아, 금새록.

KBS 2TV '오월의 청춘' 4인 4색 포스터 공개

이도현·고민시·이상아·금새록 80년대 청춘들의 애뜻함 표현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이 4인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5월 3일 오후 9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극본 이강/연출 송민영, 이대경/제작 이야기 사냥꾼)은 이도현(황희태 역), 고민시(김병희 역), 이상아(이수찬 역), 금새록(이수연 역)의 모습이 담긴 캐릭터 포스터 4종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는 이도현, 고민시, 이상아, 금새록이 '오월의 청

춘'에서 맡은 캐릭터들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어 내 남자의 사연에 궁금증이 고조된다.

제작진은 "포스터 촬영 당시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네 명의 배우가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보이면서도 80년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애뜻함을 표현해야 할 때는 완벽 몰입하는 연기력을 뽐냈다"라며 유쾌했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오월의 청춘'은 1980년 5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희태(이도현 분)와 명희(고민시 분)의 아련한 봄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레트로 휴먼 멜로드라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8K 첫 승' 김광현, 30일 필라델피아전에서 2승 사냥

주말 신시내티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 5%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시즌 첫 승 세인트루이스, 10일까지 지옥의 17연전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사진)이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한다.

26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마이크 실트 감독은 당분간 6인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한다.

세인트루이스는 24일 신시내티 레즈전부터 5월 10일 콜로라도 로키스전까지 지옥의 17연전을 치른다.

기존대로 5인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경우, 선발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요한 오비에도를 로테이션에 넣었다. 세인트루

이스 선발투수들은 5일 휴식 후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김광현은 로테이션대로 나올 경우 30일 오전 2시 15분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필라델피아와의 홈경기에 등판한다.

김광현은 24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 5%이닝 5피안타 1실점을 기록해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허리 통증으로 뒤늦게 시즌을 시작한 김광현은 18일 필라델피아와의 첫 등판에서 3이닝 5피안타 1볼넷 4탈삼진 3실점으로 주춤했지만, 두 번째 출격에서 간재함을

과시한 바 있다. 이날 김광현은 고속 슬라이더를 앞세워 커리어 최다인 8탈삼진을 기록했고, 타석에서는 빠른 발을 이용해 내야안타를 때려내기도 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안타였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틱톡 솔로나잇', 국내 대표 솔로 뮤지션 출동

규현·태민·제시·이영지 출연 내달 6일 2시간 동안 생방송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이 언택트 라이브 공연 '틱톡 스테이지 솔로나잇'을 개최한다.

국내 대표 솔로 뮤지션 슈퍼주니어 규현, 사이니 태민, 제시, 이영지 총 4명의 아티스트가 출동한다.

5월 6일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틱톡 앱 내 틱톡 스테이지(@tiktok_stage) 계정에서 라이브로 방송된다. 틱톡 앱을 사용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에는 유명 작사가 김이나가 MC로 참여해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담은 진행을 결집할 예정이다.

틱톡은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팬들이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총 3개의 사전 이벤트를 마련해 2일부터 행사 전날인 5월 5일까지 진행한다.

첫 번째 이벤트는 '김이나의 틱톡이나 할까'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챌린지 영상 중 아티스트가 영상을 찍어 주길 바라는 콘텐츠에 댓글로 아티스트의 틱톡 계정과 틱톡 스테이지 계정을 태그하면 응모된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